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에너지 비용에 미 9월 생산자물가, 큰 폭 상승
- Bloomberg: 휘발유 판매 호조에 미 9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
- YahooFinance: 시카고 연준 총재 “AI가 없었어도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것”

[미국 금융]
- CNBC: 미 재무부, IMF의 미국 부채 경고 일축
- Bloomberg: S&P 500, 회복 반등…반도체주 폭락 속 '주식 갈아타기' 현상
- WSJ: 애플, 엔비디아 이어 '시총 5조 달러' 클럽 가입

[미국 생활]
- Bloomberg: 은퇴자 60%, 노후 자금 고갈 우려에 '지출 축소'

[중국 경제]
- WSJ: 중국 자동차업계, 내부 한계로 해외 진출 박차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CNBC: 테슬라, ‘플라잉 카’ 시연 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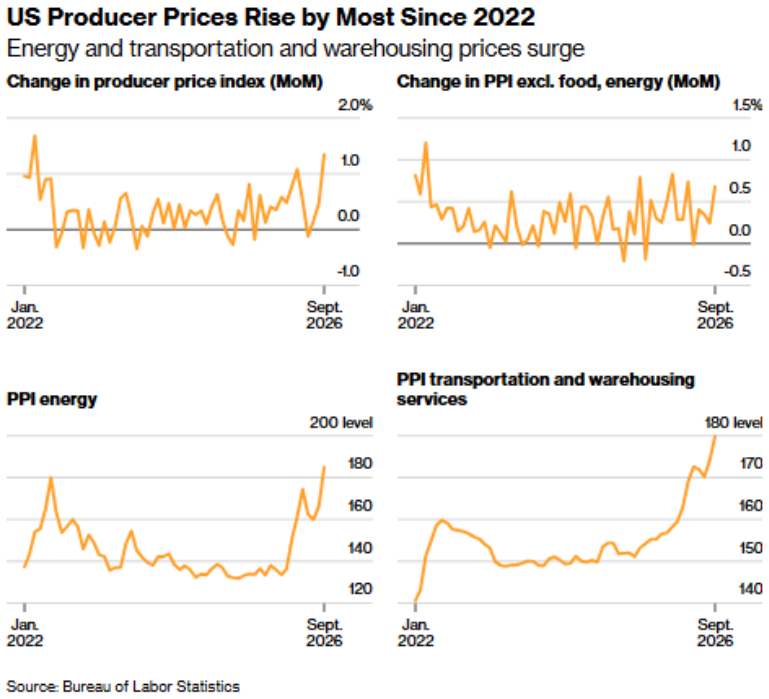
[KMI 공급망 브리핑]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Producer Prices Rise Most Since 2022 as Energy Shock Worsens
에너지 비용에 미 9월 생산자물가, 큰 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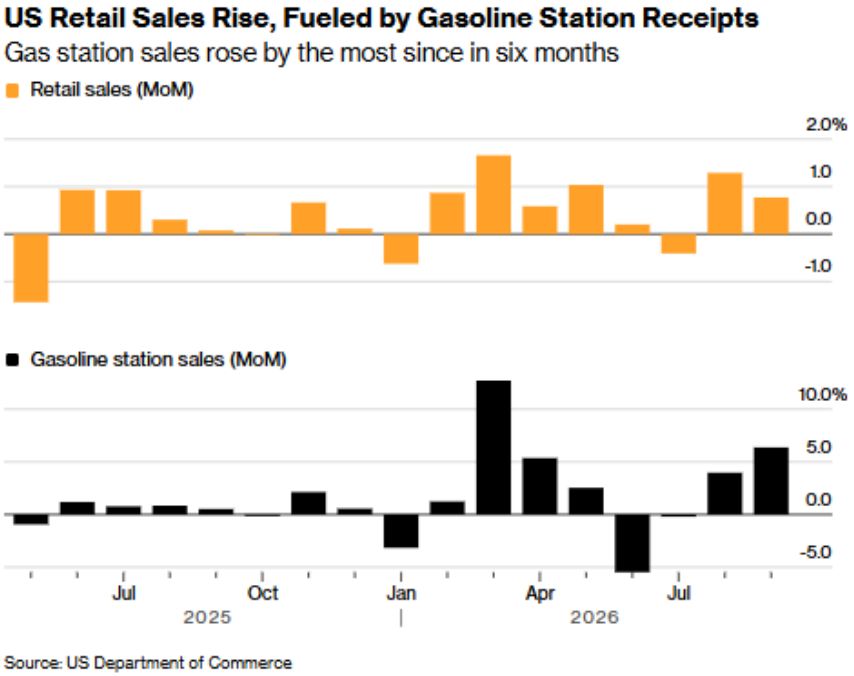
- 에너지 비용 상승이 미국 경제 전반으로 퍼지면서 9월 생산자물가지수(도매물가지수)가 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다.
- 연방 노동통계국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.3% 상승해 2022년 3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,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.3% 올랐다.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.7%, 전년 동기 대비 5.0% 상승하며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.
- 근원 물가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,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



기사

Bloomberg: US Retail Sales Rise More Than Expected on Gasoline Receipts
휘발유 판매 호조에 미 9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

-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주유소 매출 증가에 힘입어 미국의 9월 소매판매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.
-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.8% 증가해 8월(1.3%)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. 다만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.2% 증가에 그쳤다.
- 13개 항목 중 8개 분야가 상승했으며, 주유소 매출이 6.4% 급증해 상승세를 이끌었다. 취미 용품·건축자재 지출은 감소한 반면 가구, 전자제품, 음식점 매출은 늘었다.



기사

YahooFinance: Fed's Goolsbee: Even without AI, the economy would not be in recession
시카고 연준 총재 "AI가 없었어도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것"

-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며 경제 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운데, AI 성장세가 둔화하면 경제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?

-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AI 붐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자원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
- 그는 “AI가 경제 전반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AI 붐이 다른 산업을 상당히 강하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”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자신이 관할하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. 현지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.
- 그는 “동일한 전기 기술자와 부품, 토지, 건설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U.S. Treasury dismisses IMF debt warning and ‘messy’ forecasting
미 재무부, IMF의 미국 부채 경고 일축

- 미국 재무부가 자국 재정 정책을 비판한 국제통화기금(IMF)을 향해 예측 정확성부터 점검하라며 일축했다.
- David Zervos 미 재무부 자문관은 CNBC "IMF는 미 재정 정책을 지적하기 전에 부실했던 자신들의 예측 기록부터 돌아봐야 한다"라고 비판했다. 앞서 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단순 경제 성장만으로는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없다며 재정 감축 조치를 촉구했다.
- 이번 공방은 미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5%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.

기사

Bloomberg: S&P500 Bounces as Chip Rout Spurs Stock Rotation
S&P 500, 회복 반등…반도체주 폭락 속 '주식 갈아타기' 현상

- 뉴욕 증시에서 대형 반도체주 매도세가 이어지며 자금이 대체 주식군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‘주식 갈아타기’와 안전한 국채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.

- 반도체 지수가 7일 연속 하락했지만, S&P 500 구성 종목 다수가 상승하며 지수는 보합권으로 방어했다. 기술주 약세로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1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5.09%를 기록했다.
- 한편, 마이클 켈리 JP모건 전략가는 현 상황에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.

기사

WSJ: Apple Joins Nvidia in the $5 Trillion Valuation Club
애플, 엔비디아 이어 '시총 5조 달러' 클럽 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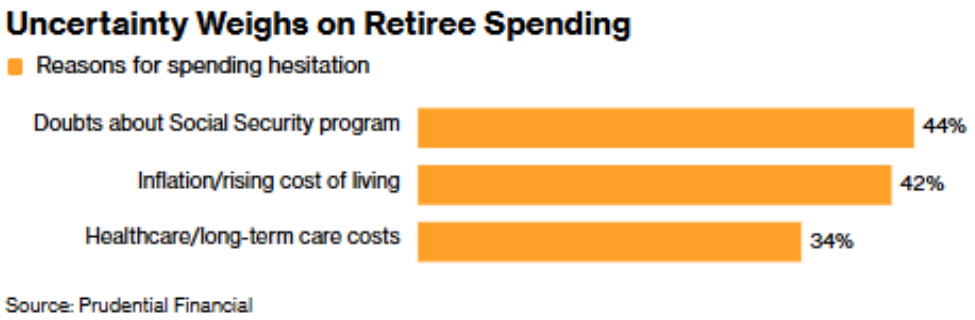
- 애플이 어제 수요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5조 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'시총 5조 달러'를 돌파했다.
- 이번 기록은 15년간 애플을 이끈 팀 쿡 전 CEO의 임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, 신임 CEO 존 터너스 체제의 출발을 알리는 성과다.
- 최근 부품 원가 상승으로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했다. 다만 신임 CEO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.

기사

[미국 생활]

Bloomberg: Retired Americans Are Putting Off Fun for Fear of Running Out of Money
은퇴자 60%, 노후 자금 고갈 우려에 '지출 축소'

- 푸르덴셜 파이낸셜 조사에 따르면 투자 가능 자산 5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은퇴자의 60% 이상이 여가와 즐거움을 위한 지출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금 서비스 기관인 TIAA 조사에서도 응답자 1천 명 중 절반 이상이 최대 노후 걱정으로 '사망 전 자금 고갈'을 꼽았다.
- 이러한 지출 위축은 헬스케어 등 물가 상승과 더불어, 6년 내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22% 삭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.



기사

[중국 경제]

WSJ: Chinese Automakers Focus on International Expansion Despite Limits
중국 자동차업계, 내부 한계로 해외 진출 박차

- 중국 자동차 업계인 BYD, Li Auto, Changan 등이 국내 시장의 판매 둔화와 경쟁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 고급 SUV, 픽업트럭, 급속 충전 전기차를 앞세워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- 그러나 이들 기업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고율 관세와 소프트웨어 규제로 사실상 수입이 막히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.
- 이에 따라 중국 차 업계는 새로운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려 판로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Tesla Readies Flying Car Demo to Pump Up Sluggish Auto Business
테슬라, '플라잉 카' 시연 준비

- 테슬라가 초고성능 스포츠카의 비행 기능을 선보이기 위해 텍사스주 웨이코 인근 스페이스X 로켓 시험장에서 시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. 날아다니는 차량이 아닌, 달리면서 공중에 잠시 뜨는 차량을 말한다
- 이번 시연으로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, 높은 가격대와 적은 수요로 인해 회사 전체 실적이나 판매량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.
- 이번 신형 공개는 단조로운 제품 라인업을 보완하고 혁신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.

기사

[KMI 공급망 브리핑]

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·물류 충격 확산

- 호르무즈 해협에서 싱가포르 선박 2척이 피격돼 1척이 기뢰 충돌로 침몰했다. 공격 건수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동량이 급감했다.
-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본사 및 공항 공격으로 아람코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, 리야드 공항은 10월 17일까지 폐쇄돼 항공편 3,100편이 취소됐다.
- 이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106.60달러로 급등하고 유조선 운임은 7배 폭등했다. 여파로 미 9월 CPI가 3.7% 상승해 예상을 상회했으며, IEA는 경유 부족이 2027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111.30	+489.0	+0.95%
US 500	7,726.20	+6.7	+0.09%
Dow Jones	52,097.80	+476.32	+0.92%
S&P 500	7,726.15	+7.21	+0.09%
Nasdaq	26,587.35	-105.52	-0.40%
S&P 500 VIX	16.88	+0.01	+0.06%
Dollar Index	101.913	-0.429	-0.42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1 4/32	5.429	-0.096
10-Year Note	4.625	28/32	5.101	-0.085
7-Year Note	5	27/32	5.000	-0.091
5-Year Note	5	3/32	4.916	-0.071
3-Year Note	4.875	24/32	4.857	-0.062
2-Year Note	4.75	1/32	4.768	-0.040
1-Year Bill	0	-1/32	4.461	-0.038
6-Month Bill	0	0/32	4.366	-0.006
3-Month Bill	0	0/32	4.195	-0.005
1-Month Bill	0	0/32	4.001	0.015

미국 USD	유럽 EUR	일본 JPY	중국 CNY	유로/달러	달러인덱스
1,344.70	1,506.67	850.24	201.00	1.1152	102.12
+1.70 (0.13%)	+6.54 (0.44%)	+0.80 (0.09%)	+0.37 (0.18%)	-0.0047 (0.42%)	-0.43 (0.42%)
10. 16. 00:44 ● 실시간	10. 16. 00:44 ● 실시간	10. 16. 00:44 ● 실시간	10. 16. 00:44 ● 실시간	10. 14.	10. 15. 11:36 ● 10분 지연

환전고시환율 | 국제시장환율

미국 USD

1
1 달러

대한민국 KRW

1,345
1,345 원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